

한국J&J, 바르는 피부접착제 출시

한국 Johnson & Johnson Medical은 상처부위를 꺾매지 않고 부위에 발라 치유할 수 있는 의료용 액상접착제 “더마본드”를 국내 판매한다고 4월11일 밝혔다.

존슨앤존슨은 더마본드가 얼굴을 포함한 전신 피부의 상처와 각종 외과수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, 피부에 바른 뒤 2분30초안에 투명막을 형성하면서 상처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.

투명막은 5-10일 안에 새살이 돌아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며, 이에 따라 환자들이 봉합수술 후 실을 뽑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.

J&J는 2000년부터 미국과 유럽, 일본 등에서 더마본드 제품을 판매해왔다. 가격은 7cm 접착용 앰플이 5만원이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4/ 15>